

“보석 같은 땀방울을 포상합니다”

전북중기청,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28일까지 신청·접수 벤처·투자·창업·지식서비스 활성화 분야 총 183점 포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발굴, 격려하기 위해 2019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벤처 창업인들을 모아 벤처활성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지식서비스활성화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훈

장 3점, 포상 1점, 대통령표창 18점 등 총 183점을 포상한다.

부문별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벤처활성화 분야는 벤처기업인 및 벤처지원에 공헌한 지원기관과 소속 임직원 ▲투자활성화 분야는 투자 지원에 힘쓴 벤처캐피탈 등 단체 및 소속 임직원 ▲창업활성화 분야는 창업기업인 및 청년기업인과 대학, 연구기관 등 창업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

지식서비스활성화 분야는 지식서비스 기업인 및 지식서비스 지원기관과 소속 임직원이다.

신청절차는 접수받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요건 확인 후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에 추천(7~9월)하고 공적심의회 심의(9월)를 거쳐 대국민 공개검증(9~10월)을 하여 최종 확정한다.

포상은 11월 2019년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진흥 유공자들의 땀방울을 응원한다. 이들이 흘

린 땀방울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어 마침내 오늘의 경제를 이뤘다. 이번 포상은 결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드리기 위함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K-Startup(창업넷)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3) 또는 벤처기업협회(02-6331-7082)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중소식품기업 중국시장 진출 ‘파란불’

aT-징동, 한국식품관 개설 위한 MOU 체결...신유통시장 진입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5월 3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2위인 징동(京)과 한국식품관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징동 한국관 개설 및 한국관에 개설된 한국식품관 개발과 홍보 등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징동은 현재 네덜란드관, 태국관 등 7개의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은 여덟 번째로 개설됐다.

한국관 개설로 국내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현지 유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중국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도에 설립된 징동은 온라인 쇼핑물, 금융,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룹으로,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4월 허마센성과의 MOU를 시작으로 중국 O2O 신유통 강자 1, 2위 모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O2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우리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드(THADD) 완화와 함께 작년 7월 1일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최대 해관세율이 15.2%에서 6.9%로 인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5월 3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2위인 징동(京)과 한국식품관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여건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4월말 현재 대중 농수산물 수출액은 522백만 달러로 전

년 동기대비 29.7% 증가하여 수출 5대 권역(일본, 미국 등) 중 증가율 1위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예비창업패키지사업 2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019년 예비 창업패키지사업(일반 2차)'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여,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 및 창업 성

공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분야 2차 모집은 전국 6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 중 전북지역은 51명이 선정된다.

창업자를 키울 주관기관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교 등 전국 37곳으로, 전북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15명), 전북대학교(18명), 원광대학교(18명) 3곳이 야심차게 예비창업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청대상의 변경

이다. '2018년까지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의 사업자(업종 무관)를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예비 창업자만을 지원하여 명실 공히 예비창업자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0개월 이내이며, 지원절차는 신청, 접수 및 선정평가를 거쳐 협약 체결 후, 기초 창업교육 및 전담 멘토 매칭으로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평균 450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김광재 청장은 “뚝뚝 뛰는 아이디어

로 무장한 젊은 기술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청년 실업률도 낮추고 기업수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시장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동 사업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창업넷)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3)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LX, 공간정보 활용의 장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진행한다

매년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 기술 개발 및 교류,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1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적 미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자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행사의 국제위상 제고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국제측량사연맹(FIG) 회의와 연계했으며, 공간정보 기업의 성과확대를

위해 공간정보관련 주요사업 발주설 명회를 신설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차원의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교류와 비즈니스의 장이다.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 활성화와 양적, 질적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가장 가까운 유럽을 이스타항공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취항 1주년 기념 특가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취항 1주년을 기념하여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늘부터 특가 이벤트를 오픈해 19일까지 열흘간 6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출발 가능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편도총액운임기준 최저가 ▲인천-블라디보스토크 9만26100원 ▲부산-블라디보스토크 9만47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블라디보스토크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여행 가이드북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 이스타항공을 이용 고객이 미디어(Media), 구스카라스

(Gus-Karas) 등 현지 레스토랑이나 라운지를 이용할 때 탑승권을 제시하면 제휴사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3시간 미만의 비행시간으로 유럽의 풍취를 느낄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불린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13일 첫 취항해 작년 7~8월 기준 88% 평균 탑승률을 기록하며 인기 노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7~8월 더운 여름 날씨에 선선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매력 있어 2030층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통계청(청장 김신욱)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의 약 6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2019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진행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코자 통계청에서 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이다.

금년 통합조사는 프랜차이즈조사, 대규모복합법인, 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가 추가되어 보다 세부적인 경제구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와 조사별로 2019년 11월~2020년 1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방태경 전주사무소장은 2019년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체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IFC, 업무협약 체결

전북은행 자회사인 프놈펜 상업은행(은행장 신창무)과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상호위험 분담을 통한 캄보디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관으로서 이번 PPCBank와의 협약을 통하여 캄보디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0만 달러의 위험부담을 50%씩 공동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총 5억2000만달러(5500억)의 대출이 PPCBank를 통하여 캄보디아내 중소기업에 제공될 예정이다.

PPCBank 신창무 은행장은 “캄보디아는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중소기업의 약 60%가 금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PCBank와 IFC의 협약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PPCBank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